맥박

마이클 코그

BLIZZARD ENTERTAINMENT

"*코라문드*". 프로토스는 그 우주모함을 "위대한 경이"라고 불렀고, 이 배의 제 3 공학자인 이아루가 생각하기에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은 없었다. 선체의 곡선에 드러나는 우아함은 부인할 여지가 없었고, 칼라이 장인에 의해 섬세하게 제작된 미끈한 윤곽은 아이어 북부의 쉬레카 언덕을 떠오르게 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동력 장치의 고유한 불꽃을 통해 중앙 핵 시스템은 원래 사양 이상의 성능을 발휘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특히 더 그랬다. 아울러 이아루는 자신이 감독하는 격납고와 생산 설비에서 함대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의 요격기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함선의 요격기는 보통 다른 우주모함의 비행체에 비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많은 적을 처치하곤 했다.

하지만 *코라문드*의 명성을 드높인 건 다른 어떤 함선도 보여주지 못한 탁월한 기록이었다. 끝없는 전쟁 이후로 수백 년의 운행 기간 동안 이 함선은 셀 수 없이 많은 전투를 이끌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거주지를 점령했다. *코라문드*의 전설은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이 배가 눈에 띄기만 하면 그 요격기를 두려워한 적들이 꼬리가 빠져라 도망쳤다. 역겨운 저그가 아이어를 공격했을 때, 태사다르가 직접 *코라문드*가 자신의 기함인 간트리서의 곁에서 싸울 것을 요청했었고, 이 함선은 전쟁이 씁쓸한 입맛을 남기고 마무리될 때까지 명예롭게 그 사명을 다했다. 소위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공허 포격기가 배치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코라문드*를 향한 프로토스의 사랑은 이 우주모함이 다른 수많은 함선들과 마찬가지로 속칭 "대함대"에서 퇴역하지 못하게 막았다. *코라문드*는 이아루와 수백 만의 다른 프로토스에게 아이어의 전통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그 상징이 지금 위기를 맞았다. *코라문드*는 저그에 쫓겨 바나스 행성에 빙글빙글 떨어져 내리며 화염 속에서 최후를 맞을 운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아루가 엔진을 수리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도 머지 않았다.

"위대한 카스의 이름으로, 너 대체 지금 어디에 있나?" 전투 중 공학자들을 감독하는 고위 기사 텐자알이 새된 소리를 질렀다. 늘 그렇듯, 찢어질 듯 높은 그녀 마음의 목소리가 이아루를 움츠러들게 했다. 그녀가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 주면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지금 뭐라고 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위 기사님." 이아루가 답했다. 생각이 멋대로 흘러가지 않게 주의해야 했다.

그의 헬멧 사이오닉 링크는 왁자지껄한 전투의 혼란 속에서 정신의 소통을 가능케 하기 위해 가장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지금 엔진 접근 통로에서 교차로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곧 중계기가 보일 겁니다."

"서둘러! 방어막이 부서지고 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

함선이 거듭된 작은 폭발에 휘말려 빙글 회전하며 떨렸다. 이아루는 장갑을 낀 양손으로 사다리를 붙잡아 무중력 상태에 몸이 떠오르지 않게 했다.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요격기가 모두 파괴됐다! 선체에 쐐기 벌레다! 저그가 함교에 침투한-"

사이오닉 검에 싹둑 잘려버린 듯 텐자알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고위 기사님?"

그는 링크를 조율했다. 항성 간의 간섭에 의해 통신이 교란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헬멧의 표시 장치는 수신율이 최대값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아루는 마음을 뻗어 봤다. 물론, 자신의 보잘것없는 사이오닉 능력을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없는 일이긴 했다. 칼라이 계급의 일원으로서, 그는 자신과 가까운 곳을 벗어난 장소와의 소통을 위한 정신 훈련을 제대로 받은 일이 없었다.

'제3 공학자가 함교에. 응답 바랍니다. 제3 공학자가 사령부에. 응답 바-'

응답은 갑작스런 고통의 해일이 되어 밀어닥쳤고, 그 결과 사이오닉 링크의 여과기가 폭발하며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는 사다리의 가로단에 다리 하나를 걸고, 충격 때문에 통로로 떨어져 나가는 일을 막았다.

'운 다라 마나카이; 운 다라 마나카이.' 그는 아주 오래 전에 배운 칼라니 기도문을 반복했다. 이런 힘든 시간에 그에게 구원이 되어준 말이었다. *'운 다라 마나카이. 우리 의무는 끝이 없다.'* 그가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막아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운 다라 마나카이... 운 다라 마나카이.' 서서히 불협화음이 잦아들었다. 그의 마음이 다시 헐떡거리며 숨쉬기 시작했고, 잠시 기다리자 마음이 정리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죽었다. 그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다. 법무관, 참모진, 텐자알. 저그가 함교에 침입해서 모두를 학살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강한 사이오닉의 충격을 설명할 다른 방법은 없다. 그가 느꼈던 고통을 설명할 다른 방법은 없다. 그들의 목소리는 칼라에서 뜯겨나왔고, 그런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그가 살아남은 건 그저 행운이랄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함대 사령부는 *코라문드*에게 저그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프로토스 병력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최전선으로 이동하던 중, *코라문드*는 외딴 행성 바나스에 있는, 오래 전 버려졌다고 생각됐던 거주지에서 구조 요청 신호를 받았다.

그 신호는 함정이었다. *코라문드*가 순간 이동하여 나타난 곳은 저그 군단의 한가운데였다. 후퇴는 선택지에 없었다. 공격을 시작한지 단 몇 분만에 *코라문드*의 중력 보정기가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엔진 중계기 역시 이상하게 작동을 멈춰, 함선은 저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이알루와 그의 팀은 저그 타락귀와 뮤탈리스크가 쉴 새 없이 우주모함을 두들기며 우현 갑판을 파괴하는 사이에 서둘러 전투기를 준비시켰다. 그 공격의 와중에 선원 절반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제 1 공학자와 제 2 공학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공서열에 따라 이아루가 엔진을 수리할 차례가 되었다. 텐자알은 당장 엔진 접근 통로로 가라고 명령했고, 그 결과 *코라문드*의 요격기를 발진시키는 건 그의 손아래인 사코포의 몫이 되었다. 이아루가 수정 연결망이나 동력 중계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기껏해야 평범한 수준이라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보다 우주모함에 대해 더 잘 아는 공학자 중 살아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사이오닉 링크가 고장났다는 사실은 난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했다. 함선의 선원과 교류할 수도 없었다. 물론, 살아남은 이가 있을 경우의 얘기였겠지만. *코라문드*의 운명은 이제 그의 어깨에 얹혀 있었다. 함대의 제 3 공학자인 오직 그에게 달려 있었다.

이아루는 마음 속에서 그 끔찍했던 비명의 마지막 메아리를 떨쳐버렸다. 그리고 중계기 연결망에 더 빨리 접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사다리를 버리고, 벽을 걷어차며 앞쪽으로 가속도를 붙였다.

중력이 없다는 것에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통로가 흔들리기라도 하면, 그는 미사일처럼 뒤쪽으로 날아갈 수 있다. 조심해야 했다.

의도치 않게 저그의 공격이 그를 도왔다. 아마 쐐기 벌레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 폭발이 선체를

뒤덮으며 그의 가속에 힘을 보탰다. 교차로에 가까워지는 순간 그는 사다리 가로대를 붙잡았다. 다리를 죽 뻗으며 몇 번을 빙글빙글 돈 끝에 그는 급격히 방향을 틀어 수정 중계기 연결망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마지막 긴 통로를 향해 날았다.

아니, 그 연결망이 있어야 하는 곳이었다.

통로 끝에는 빛이 없었다. 희미한 푸른빛도, 그곳에 있어야 할 수정의 반짝임도 없었다. 오직 어둠뿐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법무관 쿠오르다스가 연결망이 여기 있을거라고 했고,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녀는 이 우주모함의 사령관이었을 뿐 아니라, 최고위 기사기도 했다. 칼라이에 속한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이였다. 칼라가, 이아루는 절대 가질 수 없는 통찰력을 그녀에게 주입했다.

중계기 보관실 벽에 부딪힌 그는, 충돌의 충격으로 튕겨나가기 전에 손잡이를 붙잡았다. 그의 몸은 손끝에서 발끝까지 죽 펴졌고, 한 순간 그는 팔 근육이 모두 찢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낸 끝에, 집중실을 향해 몸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그는 헬멧의 조명등을 켜고 집중실 내부를 살폈다. 그가 손을 흔들자 압력 센서가 깜박였다. 중계선 여덟 개를 세어 보았다. 주 동력 장치에 손을 대자 박동이 느껴졌고, 다중 정화선을 만지니 최근 사용된 에너지 때문에 약간 얼얼한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예외는 단 하나, 중계선과 동력 장치를 연결하는 수정 연결망이 없었다.

쿠오르다스 법무관이 틀렸던 걸까?

그는 그 생각을 잠시 접어 두었다. 사이오닉 링크가 파괴된 것이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은 반역이었다. 지금은 눈앞의 문제에 집중해야 했다. 그것이 칼라이이자 공학자로서 그의 임무였다.

그는 선택 가능한 방안을 확인했다. 동력은 특별히 조율된 연결망이 없으면 엔진으로 전달되지 못하지만, 새로 하나를 만드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수정으로 된 엔진 연결망의 경로를 그려낼 시간도, 그런 사이오닉 능력도 없었다. 저항의 연결을 끊고 중계기를 주 동력원에 끼워 넣어 임시방편으로 중계선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방출한 뒤, 기계가 모두 타버릴 것이다.

안 돼. 그는 연결망이 필요했다. 사랑하는 *코라문드*가 바나스에 추락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 필요했다. 그런데 어디로 갔을까? 수정이 깨어졌다면 여기 조각이 있었을 것이다. 보관실에서 누군가 가져갔다면, 배의 기록에 남아 그의 헬멧 표시부에 출입구를 통과한 경로가 표시될 것이다.

그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 통로에 침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얘기였다.

그는 조명등으로 통로를 비췄다. 멀리 벽을 따라 올라가는 사다리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헬멧의 탐지기를 열원이나 생명 신호를 포착할 수 있게 조정했다. 역시 모든 정보가-

홀로그램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다. 위쪽에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었다. 이아루가 뒤로 돌아 황급히 물러나는 순간, 단검이 가득 박힌 것만 같은 주둥이가 콱 소리를 내며 그의 머리가 있던 곳을 물었다. 강력한 조명등 빛이 그를 살렸다. 공격해 온 상대는 밝은 빛에 꽥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쉿 소리를 내며 물러났다.

이런 형태의 저그는 책 속에서 참 많이 봤었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본 뮤탈리스크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무시무시했다. 이빨과 발톱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 괴물은 거죽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날개와 역겨운 다홍빛으로 불타오르는 여덟 개의 매서운 눈을 지니고 있었다. 비늘로 덮인 뱀 같은 몸에는 줄지어 가시가 돋히고, 그 아래쪽 끝에는 송곳니가 돋은 또 하나의 주둥이이자 배설강이 있었다. 타액이 뚝뚝 떨어지는 그 구멍에서 꿈틀거리는 날카로운 가시 덩어리, 쐐기 벌레가 수도 없이 튀어나왔다.

이아루는 몸을 던져 바닥을 굴렀다. 쐐기 벌레는 그의 뒤쪽 벽을 강타하고, 그 결과로 일어난 폭발이 그를 반대쪽으로 내던졌다. 활강 속도를 늦추기 위해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버둥대던 그는, 사다리를 놓치고 결국 단 하나 남은 것을 붙잡았다. 바로 뮤탈리스크의 날개 끝자락이었다.

그 생물은 그를 떨쳐내려고 꿈틀거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괴물이 좌절하여 통로를 뒤흔드는 울음소리를 토해내는 동안, 놈의 목이 창백한 푸른빛으로 빛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아루는 즉시 그 빛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수정 연결망의 빛이었다.

어떻게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뮤탈리스크는 요격기들을 피해 우주모함의 통로로 숨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들 멍청하다고 믿고 있는 이 저그 생물이 무척 영리하게도, 아니면 단순히 배가 고파서, 수정 연결망을 삼켜 버린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이제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연결망을 이 생물의 식도에서 꺼내기만 하면, *코라문드*의 엔진을 복원하고 함선의 속도를 높여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주모함이 다시 한 번 흔들렸다. 이번 충격은 어찌나 강한지 이아루와 뮤탈리스크 모두 중계기와 충돌했다. 이아루는 주위의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 날개에 더 강하게 매달렸다. 뮤탈리스크는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빙글빙글 돌고, 쐐기 벌레를 무더기로 쏘아대기 시작했다. 쾅, 쾅, 쾅, 소리와 함께 벌레는 연이어 통로 벽에 박혔고, 동시에 폭발하며 선체에 커다란 구멍을 냈다. 빛이 통로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희미한 별빛이 아닌, 환한 한낮의 빛이었다.

흐릿하게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이아루는 함선 아래쪽으로 대륙과 대양의 형체를 본 것도 같았다. *코라문드*는 바나스의 구름을 뚫고 추락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충돌이 머지 않았다.

이아루에게는 광전사와 같은 전투 기술도 없었고, 그의 손톱은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아 무뎠다. 하지만 공학자의 정신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능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도구를 붙잡고 있었다.

그가 날개를 잡고 있던 한쪽 손을 놓자, 우주모함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며 하마터면 나머지 한 손마저 놓칠 뻔 했다. 하지만 다행히 손가락으로 뼈를 붙잡고 몸을 날개 위로 끌어올린 그는, 꼬리 주둥이의 중앙을 힘껏 걷어찼다.

그 생물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배설강을 뒤틀어 보복하려 했고, 괄약근에서는 쐐기 벌레를 쏘아댔다. 이제 그를 가려 줄 뮤탈리스크 날개도 없었으니, 그 끔찍한 무기로부터 이아루를 지켜줄 것은 없었다.

모두 계획대로였다. 벌레가 자기를 향해 총알처럼 날아오는 순간, 그는 날개 뼈를 놓아버리고 떨어져 내렸다. 벌레는 그가 있었던 곳을 향해 날았다.

이아루는 수업 시간에 쐐기 벌레가 유기물로 이루어진 기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배웠었다. 그 존재의 의의와 행복의 끝은 모두 칼날처럼 목표물을 뚫고 들어가 충돌 시점에 자기 자신의 몸을 폭파시켜 버리는 것뿐이었다. 그게 쐐기 벌레의 일생이었다. 그게 저그가 완성시킨 그 벌레의 삶이었다. 뮤탈리스크의 자궁은 모든 쐐기 벌레를 최종 목표물에 충돌하기 전에 다 자란 성체가 될 수 있게, 그럼으로써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게 유전적으로 개량했다.

이 특정한 벌레는 최초의 목적보다 아주 짧은 순간을 더 살았다. 조금 전까지 이아루가 있었던 공간을 비행하며, 쐐기 벌레는 성체가 되어 환한 초록빛으로 무르익으며 폭발을 준비했지만, 비행 궤도를 수정하여 최초 의도한 목표물을 찾아갈 지적 능력은 없었다. 뮤탈리스크의 얇은 날개를 뚫고 쐐기 벌레의 삶은 계속되었다. 벌레는 젊음을 잃은 에메랄드빛 광택을 보이다가, 노쇠한 청록색으로 쭈그러들고, 결국 뮤탈리스크의 복부에 충돌했다.

끔찍한 분노로 뮤탈리스크의 눈 여덟 개가 모두 휘둥그래지고, 벌레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맞이했다. 자의식이 없는 그 작은 유기체는 자신이 어미의 살갗을 파고 든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그저 삶의 목적인 폭발을 위해 마지막 힘을 보탰다. 뮤탈리스크는 가시 돋친 한쪽 입에서부터 반대쪽의 다른 입까지 찢어지며 폭발했다.

폭발은 이아루를 다시 동력 중계기로 돌려보냈다. 두 팔을 버둥거리며, 그는 전선에 팔꿈치를 감아 튕겨나가지 않으려고 버텼다. 하지만 뮤탈리스크의 피를 뒤집어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 강산성 체액은 그의 방어막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내방사능복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정면 보호구를 풀고 꿈틀거리며 빠져나왔고, 바지로 헬멧에 묻은 액체를 닦아냈다.

희미한 푸른빛이 그를 반겼다. 별자리처럼 흩뿌려진 핏방울들의 틈에서 작고 푸른 난쟁이처럼 떠다니는 건 수정 연결망이었다.

이아루는 자신이 어떤 해를 입을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붉은 구름을 헤치고 수정을 낚아챘다. 산성액이 그의 피부에 닿아 부글거리고, 그 아래의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근육이 타들어가고, 세포가 증발했다. 고통은 끔찍했다. '*운 다라 마나카이, 운 다라 마나카이.*' 엔진만 다시 가동시킬 수 있다면, 이 고통을 더 오래 겪지 않아도 된다. 내방사능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위 여기저기로 튀며 돌아다니는 페이온 때문에 그도 곧 평화로운 망각 속으로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행성의 중력이 우주모함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함선은 소용돌이치며 떨어져 내렸다. 선체가 손상된 틈으로 보이는 광경에서 바다가 사라지고, 원뿔 모양의 발레 나무 숲이 나타났다. *코라문드*가 추락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다.

'운 다라 마나카이.'

그는 우주모함의 곡선을 보며 떠올렸던 쉬레카 언덕을 꿈꾸며 압력 신호를 초기화했다. 그는 요격기의 중계기를 연결하는 것과 동일한 팔각형 구조로 동력 중계기를 수정에 연결했다. 그는 주 동력 장치를 수정의 중앙에 쑤셔 넣으며, 자신의 주문을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동력 장치 속에 아직 그 특별한 불꽃이 남아 있기만을 바라면서.

다행히 불꽃은 남아 있었다. 수정이 환한 푸른빛으로 타오르며, 에너지가 연결망을 통해 뻗어나갔다. 몇 초 뒤, 엔진은 되살아나 웅웅거리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이아루는 쏟아져내리는 이온을 맞으며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죽음은 오지 않았다.

갑자기 중계기가 빠져나오고, 다중 정화선이 덜덜거리고, 엔진의 신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수정 연결망이 깨어지며, 그에게 폐이온이 아닌 수정 조각을 흩뿌렸다.

이아루가 겹겹히 쌓인 전선 위로 쳐박힌 순간, *코라문드*, 프로토스의 위대한 경이는 바나스의 숲 위로 떨어져 또 다른 위대한 절망의 유령이 되었다.

***

카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현재 삶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는 신자에게는 찬란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행복한 빛이 비추며 다음 생의 시작에 불을 지핀다고 한다.

이아루는 암흑 속에서 깨어났다. 암흑과 고통, 끔찍한 고통.

그가 움직이려 하자 피부가 갈라졌다. 가슴 위로 흘러가는 기류가 마치 불길처럼 그를 태웠다. 오른손이 욱신거렸다. 왼쪽 발바닥이 아팠다. 그가 가진 줄도 몰랐던 장기들이 고통스럽게 깜박이며 그 존재를 알렸다. 그는 안팎으로 새까맣게 구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카스가 약속했던 안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공허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아직 살아 있는 건가?

영상, 기억, 악몽이 그에게 돌아왔다. 통로. 뮤탈리스크. 그 피.

그는 죽었어야 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벌거벗고 노출된 채 산에 반쯤 녹아내렸지만, 어쨌든 살아 있었다.

어떻게?

그의 헬멧. 그 보호막이 그의 두뇌와 신경망이 용해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추락… 그 추락의 충격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궤도에서 떨어져 종단 속도에 도달한 함선이 행성과 충돌하는 충격을 견뎌낼 수 없다. *코라문드*처럼 각별히 추앙 받는 우주모함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함선과 선원 모두 불길 속의 잔해가 되어 사라졌어야 했다. 그는 잿더미가 되었어야 했다.

그랬어야 했다. 불에 타들어가는 것도 지금 그가 겪는 고통, 저그의 산성 체액에 화상을 입고 빛을 갈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비로운 운명일 것이다.

그는 암흑 속을 둘러보며 눈이 어둠에 익기만을 바랐다. 빛이 단 한 줄기, 아니 단 한 점만 있어도 기운이 나고 고통이 줄어들 것 같았다. 빛은 프로토스의 정수였고, 지혜와 힘의 원천이었고, 삶을 주는 존재였다.

암흑은 완전했다. 곧 갈증이 그를 광기로 몰아갈 것이다. 이미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그의 헬멧이 빛을 낼 수 있었다. 그는 조명등을 켜고자 하는 생각을 내보냈다. 홀로그래픽 계기판은 표시되지 않았지만 빛은 깜박였다. 잠시 후에는 조명등이 제대로 켜 졌고, 그는 광자 하나하나를 마치 물을 들이켜듯 모두 마셨다.

그는 중계기 위 전선에 엉켜 있었다. 위쪽으로 엔진 접근 통로가 지나갔다. 우주모함은 추락과 함께 뒤집어졌지만, 외벽에는 흠집도 하나 없었다. 두꺼운 발레 나무 가지가 선체의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막 돋아난 원뿔형 잎사귀로 사다리를 뒤덮었다.

이 나무들이 추락의 충격을 완화시킨 걸까? 아니면 그가 뭔가 환각을 보는 걸까?

그는 마음을 뻗으며 칼라에서 다른 존재를 찾았다. 그의 사이오닉 능력은 제한적이었고, 그나마 지금은 고통에 의해 더욱 약해졌지만, 선원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으리라.

아무것도 없었다. 메아리조차도. 웅웅거리는 소리 하나도. 원초적인 생명의 느낌이 없었다. 칼라는 어둠 속에 침묵했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생존자는 그뿐일지도 모른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가만히 누워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했다. 이 상태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기가 힘들었다. 죽음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뭔가 근질거림이 느껴졌다.

너무 미약한 느낌이라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 느낌은 주 동력 장치에 닿아 있는 그의 왼팔을 타고 내려와 규칙적으로, 일정한 리듬을 따라, 고통이나 화상의 아픔 없이 계속되었다.

맥박이었다. 동력 장치를 따라 맥박이 뛰었다. 희미하고 점점 더 약해져 가지만, 그렇게 존재했다. 이 함선에 동력이 남아 있었다. *코라문드*의 불꽃은 죽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뭐라도 해야만 했다. 그는 그 무엇보다 *코라문드*를 사랑했다. 우주모함은 그의 삶이었고, 그가 전설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어쩌면 그가 발레 나무에 뒤덮이거나, 균류 생물에 뒤덮여 썩어가는 운명에서 이 함선을 구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곳 어딘가에서 엔진을 되살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 우주모함과 혹시라도 살아남은 선원들에 대한 의무가 있었다. 그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하든 상관없었다.

무척 힘겹게 그는 중계선에 얽힌 몸을 풀어내고 두 발로 일어섰다. 그의 피부가 더 바스러지고 갈라져 떨어져, 그 아래로 부드러운 살이 드러났다. 하지만 동력 장치를 꼭 붙잡고 약하지만 멈추지 않은 *코라문드*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순간, 고통도 조금 물러났다.

그는 발레 가지를 붙잡고 통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

바나스의 강한 중력 때문에 올라가는 길은 견딜 수 없이 힘겨웠다. 함선이 궤도에 있을 때와는 달리 공중에 떠오르거나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속할 수 없었다. 그는 사다리와 나무 가지를 붙잡고 몸을 끌어올려야 했다. 강한 가지에 쓸려 화상을 입은 그의 손바닥이 벗겨졌다. 사다리를 잡으려 팔을 뻗을 때,

그의 피부가 또 한 꺼풀 벗겨졌다. 얼마 되지 않는 그의 남은 피부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는 저그의 산성 체액이 그의 맨살만을 남기고 모든 것을 벗겨버렸음을 알 수 있었다.

'*운 다라 마나카이.*' 그 말은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운 다라 마나카이.*'

그 말을 처음 들었던 때가 생각났다. 그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섬겼던 고위 기사, 림미쿠의 말이었다. 저글링이 림미쿠의 부대원을 모두 학살하고, 그의 팔다리까지 앗아갔었다. 하지만 그 고위 기사는 육체적 결함 때문에 자신의 일을 그만두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집중하여 나름의 의지를 키우고, 이아루가 그를 위해 요격기 부품에서 떼어낸 공중 부양 단상을 그 의지를 이용하여 조종했다.

'*운 다라 마나카이.*' 림미쿠는 이 말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것을 잃어야 했던 전장으로 돌아갔다.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는 찾아낼 수 있는 저글링을 마지막 한 마리까지 없애고, 저그 여왕의 주둥이에서 자신도 죽음을 맞이했다.

'*운 다라 마나카이.*' "우리 의무는 끝이 없다." 리미쿠는 이렇게 읊조리고는 했다.

이아루에게는 고위 기사의 절제도, 그 참을성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극을 전투에 사용할 탄환으로 바꿔놓지도 못했다. 공학자인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기술이 있었다. 그의 재능은 무기가 아닌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만이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 고통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 동기를 부여하고 앞으로 자신을 밀어붙이는데 사용해야만 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살아남은 한 명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운 좋은 일인지 기억해야 했다.

그는 통로 연결 지점에 도착하여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아주 잠깐 쉰 후 다시 일어섰다.

추락의 여파로 이 통로는 수평으로 놓였다. 이제 위로 기어오를 필요가 없었다. 걷기만 하면 된다. 아니, 절뚝거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의 두 다리는 더 빨리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출입구를 밀어 열고 그 뒤의 공포를 바라봤다. 아이루는 자신의 다리가 아예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

사체와 온갖 잡다한 신체 일부가 통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머리, 사지, 상체 등 모두는 각기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썩어가고 있었다. 그들 중 여럿은 그의 친구였다. 소중한 친구들, 이제 죽은 그 친구들은, 추락은 견뎌냈지만 그 뒤에 찾아온 재난은 이겨내지 못한 모양이었다.

저그의 소행이었다. 그들은 이빨과 발톱으로, 삼키지 않은 모든 것에 자신들의 표식을 새겨 놓았다. 바늘 가시뼈가 팔과 다리를 벽에 못박았다. 토해 놓은 장기들에서는 소화를 시키려다 남은 산성 얼룩이 보였다. 아무래도 신경삭이 저그가 좋아하는 먹이였던 것 같았다. 어쩌면 별미였을지도 모른다. 이아루의 눈에 들어온 모든 프로토스의 머리에서, 신경삭이 모두 잘려나가 있었다.

그는 불안하게 자신의 신경삭을 비비 꼬았다. 저그의 야만성은 동료들의 죽음의 메아리가 전혀 들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줬다. 그들의 정신은 칼라에게서 절단된 상태였다. 그는 그들에게 안식과 새로운 삶이 빨리 찾아왔기만을 기도했다.

가끔씩은 저글링 시체가 사체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사이오닉 힘에 의한 감전사나 무자비하게 망치에 맞아 죽은 모습이었다. 이 생물의 육신은 더할 나위 없이 혐오스러웠다. 그의 미적 감각을 근본적으로 거부했다. 목에서 튀어나온 낫 모양의 부속물은, 마치 더 커다란 유기체에서 잡아 뜯어내 엉성하게 저글링의 몸에 접붙여 놓은 듯 어색했다. 물론, 그게 바로 저그 돌연변이의 원칙이었다. 여러 다른 종들의 가장 끔찍한 조각들을 한 데 모아 더욱 끔찍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뒤틀린 형태의 진화를 거친 저글링은 저그 최고의 업적이었다. 구역질 나는 업적이었다.

나머지 저글링 무리가 어디로 갔을지, 이아루는 알 수 없었다. 선원들을 찢어 놓은 후에는 아마 이 함선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를 바랐다. 그는 저글링 한 마리도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런 상태에서는.

그를 정말 불편하게 한 것은 죽은 이들 중에 고위 기사 계급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었다. 사체는 모두 칼라이, 즉 공학자, 과학자, 의료인, 기계공들로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이들이었다. 이들 칼라이가 그렇게 많은 저그를 처치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대담하고 영리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저항했다는 사실이 *코라문드*를 이끌고 바나스를 떠나겠다는 그의 결의를 더욱 깊게 했다. 다른 프로토스도 이들의 용기를 알아야 한다.

고위 기사들은 잊혀지건 말건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칼라이를 지키겠다고 서약을 했었지만, 실제로

그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지키려고 했었다는 증거는 단 한 점도 없었다.

이아루는 분노의 힘으로 명상실을 향해 절뚝거리며 나아갔다.

***

부드러운 식물 사무로의 뿌리가 이아루의 발소리를 죽였다. 이 갑판에는 안쪽의 방에서 명상하는 광전사와 다른 고위 기사들이 통행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바닥에 사무로가 깔려 있었다. 전투나 그와 관련된 임무가 없을 때, 고위 기사들은 우주모함의 이 구역으로 와서 훈련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몸과 마음을 칼라에 맞춰 조율했다.

그들은 여기서 대부분 죽었을 것이다.

아무래도 고위 기사의 충성심에 의문을 가진 건 너무 성급했던 모양이었다. 명상실로 통하는 주 통로 끝에, 무너진 벽에 깔린 광전사 시체가 남아 있었다. 인접한 통로도 비슷하게 파괴되었다. 저그는 이 우주모함의 엔진만 파괴한 게 아니라, 프로토스 전사들이 머물고 있던 층 역시 파괴했다.

이번 일은 우연히 이루어진 저그의 매복 공격 같지 않았다. 우주모함의 내부 구조는 각 설계단의 창의력에 따라 모두 서로 달랐다. 타락귀가 전투 시작과 함께 이렇게 명상실을 정확히 공격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코라문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줬다. 선원들 중 누군가가 정보를 누설한 것일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이아루는 그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공학자였다. 뒤얽힌 회로와 고장 난 전선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저그의 비도덕적인 음모 따위는 그의 몫이 아니었다. 이미 그는 고위 기사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었다. 어쩌면 이런 의혹은 그가 미쳐가고 있다는 신호인지도, 아니면 홀로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인지도 모른다. 그가 목격한 오싹하고 야만적인 행위에 대한 정신적 외상일지 모른다.

이아루는 노출된 회로를 붙잡고 몸을 기댔다. *코라문드*의 희미한 맥박이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코라문드*가 그와 함께 살아 있었다. 그 심장 박동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심장은 어디 있을까? 여전히 생명을 주고 있는 그 고유한 불꽃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찾을 수 있다면, 엔진을 수리할 단서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손가락을 죽 펴고 전류의 흐름을 느끼는 데 집중했다. 맥박은 엔진 중계기를 향해 가는 것 같았다. 회로에 손을 대고 그 생명을 느끼면서 그는 반대 방향으로, 맥박의 근원을 향해 거슬러갔다.

***

회로가 그를 주 격납고로 이끌자, 마음이 놓였다. 고통도 잦아들었다. 맥박은 아직 멀리서 퍼져 나오고 있었지만 이아루는 잠시 격납고를, 자신의 격납고를 둘러봤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는 이 공간을 구석구덕 모두 알았다. 벽에 걸린 모든 도구를 알았다. 모든 강판의 흠집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알고 있었다. 모든 볼트와 나사의 정확한 회전수를 알았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위상차 스패너의 정확한 수치를 읽을 수 있었고, 여유 공간을 남기고도 연료 탱크의 용량을 두 배로 활용할 수 있게 정확한 순간에 베스핀 호스를 잠글 수 있었다.

그의 숙소는 병영 갑판에 있었지만, 격납고가 그의 진짜 집이었다.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곳, 자신의 자랑거리와 즐거움인 저 *코라문드*의 전설적인 요격기들을 만들고 수리하는 곳. 지금 저렇게 도킹 크래들에서 그가 남겨둔 그대로 반짝이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곳.

그의 손가락이 벽의 회로에서 떨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눈을 떴다.

모든 요격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연료 공급관이 연결된 채,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선체를 반짝이면서.

이건 옳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요격기들은 모두 파괴되었어야 했다. 그가 접근 통로를 기어오르고 있을 때 텐자알이 말했었다. 한두 대가 기적적으로 저그 무리에서 탈출하여 우주모함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해도, 재능 있는 선원들이 총동원되지 않으면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복원될 수는 없다.

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발을 끌며 요격기 한 대에 다가갔다. 그가 엔리타라고, 그의 "작은 화살"이라고 이름 붙인 비행체였다. 그는 플라즈마 함포에 손바닥을 올려 놓았다. 차가운 강철이 화상의 고통을 누그러뜨렸다.

그리고 그는 함포 뒤의 시체들을 보았고,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도저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러지 않아도 모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야이노, 워타라, 팔메트. 극도로 뛰어난 솜씨로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그의 지시를 따르던 하급 공학자들. 그리고 사코포까지. 거칠고 활기 넘치는 사코포는 이아루보다 백 살이 더 많았고, 텐자알과의 사소한 불화만 아니었다면 3 등 공학자로 진급했어야 했다. 그의 통통한 몸집이 발사 관제 단상에 매달려 흔들거렸고, 그의 신경삭이 벌레들처럼 발밑에 쌓여 있었다. 불에 그을린 상처 하나가 두개골을 꿰뚫었다.

이아루는 시선을 돌려 다른 시체를 다시 살폈다. 앞서 바라보지 못한 얼굴들을 확인했다. 모두 비슷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 깊고 불에 그을린 구멍이 두개골을 관통했다. 피도 없었다.

저그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다. 이건 정교한 사이오닉 검의 흔적이다.

그는 격납고를 다시 살펴보고, 조명등을 켜두었던 걸 후회했다. 광선은 그가 방금 지나온 통로에서 빠져나오는 뱀 같은 생물 세 마리를 비췄다. 저그 히드라리스크가 그를 발견하고 쉬익 소리를 내며, 껍질을 벌리며 독성 바늘 쐐기를 발사하려고 했다.

이아루는 조명등을 끄고 엔리타 뒤에 웅크렸다. 쐐기가 그의 머리 위로 지나가, 팅 소리를 내며 다른 요격기에 맞았다.

엔리타 뒤에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뛰기는커녕 걷기도 힘들었다. 그가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사이오닉 드라이버가 격납고 반대편 벽에 걸려 있었다. 그가 가까스로 하나를 꺼낸다고 해도, 히드라리스크 세 마리를 감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허 어디에도 없었다. 더 강력한 무기를 찾아야 했다. 실패의 대가는 생명이다.

엔리타가, 거기 있었다. 녹슬기를 기다리면서. 그 차가운 강철은 온기를 갈망했다.

그는 연료 공급선을 잡아 뽑고, 요격기의 아래쪽에서 비상 막대를 잡아당겼다. *코라문드* 함교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엔리타는 발진할 수 없지만, 그가 설치한 독립 사격 통제 회로 덕분에 함포는 작동하고 있었다. 적이 사령부의 명령 신호를 교란하거나, 로봇 두뇌를 박살내도 요격기가 계속해서 사격할 수 있는 바로 이 능력 때문에 그는 이 우주선을 "작은 화살"이라고 불렀다.

히드라리스크가 요격기 주위로 모여들자, 엔리타의 대상 포착 센서가 놈들을 감지했다. 이아루는 플라즈마에 삼켜지는 저그의 단말마와 지글거리는 소리를 뒤로 하고 절뚝거리며 격납고를 벗어났다.

***

함선의 회로는 그를 우주모함의 중앙 척추를 따라 이끌었고, 이제 그가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문들이 나타났다. 모두 옛 아이어의 콰이러 나무를 잘라 만든 것이었는데, 이 행성이 황폐화된 지금 이 목재는 가장 귀한 원자재 중 하나였다. 목가적인 풍경이, 그 오랜 전쟁이 일어나기 전, 보다 단순했던 시절의 모습이 그 문에 새겨져 있었다. 문은 손잡이도 자물쇠도 없었고, 그 문을 열기 위한 정신 명령을 알고 있는 자 외에는 모두의 출입을 막았다.

법무관 쿠오르다스의 숙소 문이었다. 그런데 이아루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문이 열렸다.

이아루는 칼라이 계급인 자신은 이 문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하지만 맥박은 그 방에서 퍼져 나오고 있었다. 통로를 통해 그 기운이 느껴졌다. 그 안에서-

그는 일천 번 윤회를 해도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모습을 목격했다.

두 명의 프로토스가 뜨겁게 서로를 포옹하고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다가왔다. 하나는 텐자알이었다. 칼라를 통해 그녀가 죽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쿠오르다스 법무관님*?'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포옹이 아니었다. 원시적인 결투였고, 텐자알이 우세했다. 그녀는 사이오닉 검을 가동시켰고, 그 빛이 그가 칼라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장엄했던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고, 길고 아름다운 신경삭이 걸려 있던 자리에는 흰 뼈 마디만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상대는 정말로 *코라문드*의 신성한 사령관 쿠오르다스였다.

"텐자알 님, 지금 뭘..." 이아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마음도 얼어붙었다.

"*멍청한 칼라이! 그냥 죽어 있지 그랬나.*" 텐자알이 새된 소리를 지르며, 사이오닉 검을 법무관의 복부에 찔러 넣었다.

쿠오르다스의 눈이 돌출되고, 그 피부는 어둡게 빛을 잃었다. 사이오닉 검이 그녀 내면의 빛을 빨아들였다. 쓰러지는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신경삭이 잘렸다는 것은 그녀의 죽음이 칼라에서도 침묵 속에 지나갔음을 의미했다. 비명 뒤에 찾아올 억장을 무너뜨리는 메아리를 들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는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살인이었다. 텐자알은 고위 기사였다. 쿠오르다스가 가장 신뢰하는 부관 중 하나였다. 언젠가 그녀도 법무관으로 임명될 예정이었다.

텐자알이 배신자였다.

"그래, 칼라이. 멍청한 생각은 좀 집어 치워라." 그녀는 사이오닉 검을 그에게 향했다. "그냥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고통 없이 종결을 맞게 해 줄 테니."

뒤쪽에서 갑자기 들려온 거친 숨소리 때문에 이아루의 선택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법무관 숙소로 뛰어들었다. 생애 처음으로 저그에게 감사하면서. 바늘 가시뼈가 그의 위를 지나 텐자알에게 명중했다. 쿠오르다스와 달리, 그녀는 칼라에서 비명을 질렀다.

쿠오르다스와 달리,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 소리에 눈살을 찌푸리며, 이아루는 텐자알의 보호막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그녀의 사이오닉 힘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회전으로 그녀는 가시뼈의 공격으로 입은 충격을 극복했다. 두 번째 사이오닉 검을 뽑으며, 그녀는 문간에 서 있는, 플라즈마 함포로 타격을 입은 히드라리스크에게 돌아섰다. 요격기의 함포를 피해 여기까지 온 놈이었다.

"낙오자인가. 너희 종족은 저 숲에서 죽어버리라고 내보냈을 텐데."

히드라리스크의 껍질이 벌어지며 다시 한 번 공격이 이어졌다. 텐자알은 포화에 직접 맞섰다. 눈에 보이지도 않게 빠른 손놀림으로 그녀는 가시뼈를 모두 튕겨 내거나 파괴했고, 히드라리스크 앞에 도착하여 낫 같은 두 앞발을 모두 잘라냈다.

어둠 속으로 기어 물러나며, 이아루는 저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낄 뻔했다. 거의 그랬다.

"운 다라 마나카이."

기어가던 그가 멈칫했다. 그 주문은 자신이 생각한 게 아니었다. 다른 마음으로부터 찾아온 것이었다.

"운 다라 마나카이."

법무관 쿠오르다스가 그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아직 작은 빛이 깜박였다. 그녀가 손에 쥔 수정 부적의 빛이 반사되었고, 그 부적을 통해 그녀는 생각을 전이시켰다.

이아루는 고위 기사 계급의 일부 구성원은 자신의 정신을 보여주는 렌즈 역할을 하는 부적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부적에는 고대 젤나가의 유물이자 희귀하고 눈부신 케이다린 수정이 박혀 있었고, 이는 그걸 소유한 고위 기사의 계급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 쿠오르다스의 케이다린 수정은 작았다. 작은 직사각형의 삐죽삐죽하고 흐릿한 수정은 펜던트로서도 그다지 가치가 있지 않았고, 광물 지대에서 발견한다고 해도 무심히 뽑아버릴 것 같은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희미하긴 해도, 케이다린의 빛 파동은 그가 잘 알고 있는 주기를 따라 뛰었다. 회로를 따라 흘러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맥박이었다.

이 거무칙칙하고 눈에 띄지 않는 수정이 바로 이 우주모함의 불꽃임에 틀림없었다. 쿠오르다스는 그 손에 *코라문드*의 심장을 쥐고 있었다.

"운 다라... 마나카이." 그녀의 정신이 그에게 속삭였고, 그 눈이 검게 변했다. 죽음이 그녀의 손가락에서 힘을 빼냈다. 부적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에게 굴러왔다.

"그 수정을 건드리면, 네 다음 삶까지 괴롭힐 끔찍한 죽음을 맞게 해 주마." 히드라리스크의 꿈틀거리는 몸 위에서 텐자알이 으르렁거리며, 사이오닉 검을 다시 한 번 괴물의 두개골에 찔러 넣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두려움 없이 맞받아쳤다. 그녀도 지금 그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는 손을 뻗어 부적을 집어들었다.

텐자알이 그를 향해 뛰어내렸다. 강화복의 힘과 사이오닉 능력에 의해 가속되어, 그녀는 생각의 속도와 같은 빠르기로 달려들었다.

그녀가 내려앉았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

케이다린 수정이 그를 버텨내게 했다. 힘을 줬다. 속도를 줬다. 그를... 빛나게 했다.

눈을 깜빡이는 정도의 시간에 그는 엔진 출입구를 거쳐 교차로에 도착했다. 그리고 부적의 빛을 사용하여 내려다본 곳에는-

숲이 펼쳐져 있었다.

발레 나무의 원뿔형 가지 끝에 싹이 트고 꽃이 피었다. 물과 태양빛도 없이. 가지가 통로를 앞뒤로 가로질렀다. 초목이 무성하여 그 아래쪽의 중계기를 볼 수가 없었다. 사다리도 찾지 못할 뻔 했다.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텐자알의 생각이 그를 뒤쫓았다. 그 행위만큼이나 끔찍한 느낌을 주는 생각이었다. 그녀가 다가오고 있다. 그는 가로대를 붙잡고 사다리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 나뭇가지가 마치 벽돌처럼 그의 신경삭을 때렸다. 그는 가지를 밀어냈지만 원뿔 모양의 그 뿌리가 그의 다리를 휘감았고, 다른 가지는 마치 발톱 같은 잎을 쩍 벌렸다. 그리고 그의 팔을 붙잡아, 그를 사다리에서 떼어냈다.

그는 발레의 포로가 되어 공중에 떠올랐다. 다른 가지들도 발톱 같은 나뭇잎을 그를 향해 뻗었다. 아니, 그가 지닌 것을 향해 뻗었다.

모두 케이다린 수정을 원하고 있었다.

그는 몸부림을 쳤지만, 뿌리는 점점 더 단단히 조여왔다. 역겨운 수액이 가지의 구멍에서 흘러나왔다. 그 일부는 그의 가슴에 떨어져 뜨겁게 타올랐다... 뮤탈리스크의 피인가?

저그가 발레 나무의 게놈에 침투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 틀림 없다. 지성이 없는 저그도 이 수정이 뭔지 알고 있었다. 케이다린 수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다.

그는 두 손으로 부적을 꼭 쥐었다. 저그가 그걸 빼앗으려면 그를 갈갈이 찢어야 할 것이다.

'죽여 죽여 죽여-'

텐자알이 사다리를 달려 내려오며, 사이오닉 검으로 길을 뚫었다. 뿌리와 가지가 잘려나가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났다. 이아루도 갑자기 풀려났다.

그리고 중계기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발레 초목이 물러나며, 이제 중계기가 눈에 들어왔다.

"아니, 안 되지."

텐자알이 그의 발을 붙잡아 벽으로 집어던졌다. 와지끈 소리와 함께 충돌한 그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 충격은 그를 죽였어야 했다. 보통 칼라이라면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이아루는 이보다 더한 고통도 견뎌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배운 게 있다면, 충격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정의 도움도 필요 없었다.

그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중계기를 향해 걸었다. 그리고 여덟 개의 중계선과 주 동력 장치의 연결선을 주워 모으는 순간, 텐자알이 반대편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웅웅거리는 사이오닉 검을 들고 반대편에 섰지만, 공격해 오지는 않았다. 그 대신 통로 내의 이온들이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위 기사만이 지닌 힘을 불러내고 있었다. 이아루와 함께 엔진 통로와 우주모함의 대부분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이오닉 폭풍이었다.

"왜 이러는 거지?" 가능한 한 빨리 연결망을 연결하려 애쓰면서, 시간을 끌기 위해 그가 물었다. 케이다린 수정이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았지만, 선의 끝에 맞춰지기라도 한 듯이 잘 들어맞았다. "혹시 암흑의 길을 가는 거야?"

"암흑 기사라고? 내 신경삭이 잘린 것 같나?" 그녀 주위의 구름이 에너지를 가득 품고 빛나기 시작했다. "아니다, 칼라이. 네가 내 정신을 느끼지 못하는 건, 네 약한 마음으로는 보지 못하게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쓸 데 없는 일에 힘을 쓸 필요가 없겠구나. 자, 한 번 보렴."

그녀가 생각을 풀어냈고, 그건 격랑이 되어 그의 정신을 강타했다. 그는 온 몸을 덜덜 떨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배반의 모든 면모를 드러냈다. 바나스에서 저그 군단을 발견한 일, 가짜 조난 신호를 보내고, 엔진 환기구를 일부러 열어 둔 일. 그리고 결국 그녀의 계획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프로토스들까지. 모든 연결 고리가 논리의 사슬을 따라 한 데 모여 이룬 날카로운 칼 끝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의 심장을 똑바로 겨누고 있었다.

"넌... *코라문드*를 파괴하려는 거군."

사이오닉 에너지가 그녀의 팔다리를 따라 흘렀다. 곧 그녀는 정신파만으로도 그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그러쥘 것이다.

"전쟁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칼라이. *코라문드*와 다른 우주모함들은 실패한 과거의 유물일 뿐이야. 함대의 소중한 자원과 인력을 잡아먹고, 훌륭한 고위 기사를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리는,

비효율적이고 힘도 없는 거대한 쓰레기. 저그는 우리 우주모함을 벌써 수도 없이 상대해서, 이 함선 각각의 구조와 약점, 빈 틈까지 모두 암기하고 있다. 바나스에서의 패배도, 최근 패배한 다른 전투와 마찬가지로 이 함선에 대한 저그의 지식이 놈들의 본능에, 그 유전자에 각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그래서 놈들이 망쳐놓게 한 거야?"

"우리의 동족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칼라이! 그들의 향수가 우리에게서 이 전쟁을 앗아가고 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과거를 기념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고. 그들이 이 낡고 커다란 고물을 버리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앞장 서서 이 끈을 끊어버려야 한다."

이아루는 더듬거리며 일곱 번째 선을 연결하면서, 지금 이 사태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녀의 광기에 뭔가 진실된 점이 있을까? 그 자신도 다른 많은 프로토스처럼 *코라문드*와 그 유산에 대한 감상 때문에 편견에 휩싸여 이성적인 것,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마지막 연결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수정을 향해 당겨졌다. 하지만 그는 둘을 떨어뜨린 채 붙잡아 두었다.

"이게 네 목적이었다면, 왜 나를 보내 이 엔진을 고치게 한 거지?" 그가 물었다.

"널 요격기에서 떼어 놓으려 한 거지. 네가 내 계획을 망쳐 놓을 수 있는 뭔가를 설치한 것 같았으니까. 네가 이 함선을 고치고 그 파멸로부터 구원해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너 때문에 내 일이 무척 힘들어졌구나, 칼라이."

"네가 우리 팀을 모두 죽였군."

"필요악이었지." 그녀는 확신을 담아 생각했다. 일말의 후회도 없었다. 몸 주위로 에너지가 춤을 췄지만, 그녀의 두 눈에는 오직 어둠뿐이었다.

'필요악'이라는 것이 카스의 길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고위 기사가 아니라도 가능했다.

법무관 쿠오다스, 야이노, 워타라, 팔메트, 사코포,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봉사했다. 그들은 이런 운명을 맞을 이유가 없었다.

"넌 살인자야."

그녀가 힘을 불러냈다. 텐자알 주위로, 그녀의 사지와 몸, 신경삭을 둘러싸고 이온들이 휘돌기

시작했다. "이 전쟁이 끝나면, 계승자들은 날 구원자로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그를 향해 팔을 뻗었고, 그는 폭풍의 강한 인력을 느꼈다. 진공이 그의 빛을 빨아들이려는 것 같았다. 그는 법무관의 부적을 가슴에 꼭 안았다.

'운 다라 마나카이.'

온 힘을 모아 그는 주 동력 장치를 수정 중앙에 꽂았다. 이게 작동한다면, 빛의 폭발이 불러오는 충격으로 엔진이 작동하고, *코라문드*가 바나스에서 날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텐자알과 그는 폭발에 휘말려 먼지가 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텐자알은 웃었다. "이 미련하고 눈 먼 칼라이야. 네가 엔진을 재시동하게 내가 그냥 내버려둘 줄 알았나? 저 수정이 보이지 않아?"

카리다린 수정은 어두웠다. 맥박이 없었다. 죽었다.

"이 함선은 날 수 없다. *코라문드*는 낡았고, 이제는 지쳤다. 그 불꽃은 이미 죽었어." 힘의 소용돌이가 텐자알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의 불타는 두 눈동자만이 유일한 지성의 흔적이었다. "절대로, 이 배가 별을 다시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광기 어린 비명과 함께 텐자알은 폭풍을 내뿜었다. 이아루는 꼿꼿이 서서 카스가 약속한 안식을 기다렸다.

***

오직 어둠뿐이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 새된 목소리는 마음에 무척 거슬렸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환하게 피어오르는 빛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프로토스의 삶을 밝히고 어린 아이의 탄생과 함께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빛, 무척 강한 빛이 통로를 환하게 감쌌다. 빛은 연결선으로부터 솟아나와, 벽을 따라 얽혀 있는 동맥으로 흘러들었다. 감지기의 원형 불빛이 깜박였다. 다중

정화선이 숨을 내쉬었다. 통로가 콧노래를 시작했다. 이 빛은 빛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코라문드*의 엔진이 예열을 시작했다.

그 수정, 케이다린 수정, 작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수정은 경이로운 존재였다. 폭풍의 사이오닉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불꽃을 되살렸다. 수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다. 그의 가슴에서, 그의 손에서 고동치는 빛의 맥박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심장의 두근거림처럼 점점 더 빨라졌다.

"멍청한 칼라이... 네가 우릴 파멸시켰다."

빛 너머로 텐자알의 그림자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사이오닉 검이 깜박거렸다. 방어구가 부서져 내리고, 피부가 갈라졌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메아리는 마치 은하계 너머에서 들려온 것처럼 희미했다. 그의 마음은 청명했다. 더 없이 행복하게 청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정신을 내밀었다. 그녀의 죄를 심판하는 건 그의 몫이 아니었다. 모진 악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녀도 지금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녀는 그와 같은 프로토스였다. 빛이 필요한 프로토스. 그는 그녀에게 빛을 줄 수 있었다.

"... 물러나." 텐자알이 눈을 가렸다. 그가, 그의 빛이 그녀와 반대되는 존재이기라도 한 듯. 그의 손을 잡지 않고, 그녀는 자신의 육신이 시들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사이오닉 검이 죽어 사라지고, 그녀의 몸이 어둠 속으로 소멸했다.

빛으로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이 전쟁은 프로토스를 저그와 테란과의 적대 관계로만 이끈게 아니었다. 프로토스들이 서로에게서 등을 돌리게 했다.

그녀의 재가 수정 조각 위에 떨어졌다. 조각은 빛을 반사하지 않아서, 그는 지금껏 거기에 조각이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 길쭉한 모양을 자기 자신만큼 잘 알고 있었다. 케이다린 수정 조각은 반투명한 색을 잃고 이제 칠흑처럼 검었다.

그의 손이 가슴으로 돌아왔다. 중계기에서는 빛이, 힘이 넘쳐 흘렀지만, 그 중앙에는 부적이 없었다. 오직-

그의 심장뿐이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 맥박과 일치했다. 아니, 어쩌면 그 박동이 바로 지금껏 그가 느껴온 맥박이었을지도 모른다.

안식이 그를 삶의 다음 순환으로 데려가고, 빛은 쉬레카 언덕의 퓨리낙스 부족 출신으로 *코라문드*의 제 3 공학자인 이아루가 바로 *코라문드*의 불꽃임을 보여줬다.

운 다라 마나카이.

***

"코라문드". 프로토스는 그 우주모함을 "위대한 경이"라고 불렀고, 그 이름은 틀리지 않았다. 함선은 우아한 선체를 반짝이며 사령관도 선원도 없이 바나스에서 이륙했다. 타오르는 불꽃을 엔진에 품고, 함선은 심장에 새긴 옛 아이어의 기억을 찬란한 별무리 속으로 이끌었다.